

한우

한우자조금, '한우 키우기' 어플리케이션 개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가 '한우 키우기'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활용하면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 키우기' 앱에서는 농가가 사육 중인 한우의 개체정보 및 도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축산 관련 뉴스와 한우 가격 동향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스마트폰 내에서 실제로 한우를 키우듯 시뮬레이션 게임 형태로 제작해 재미를 더했으며, 한우에 대한 질문·답변이 가능한 커뮤니티 서비스도 마련했다. 한우자조금의 '한우경영정보시스템의 개체정보'와 연동하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한우 키우기' 앱의 다운로드 비용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ttp://www.hanwoobo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정신문 [2014. 11. 16]

한우

한우자조금, 중국인 대상 한우체험 이벤트 진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난 11월 14일(금) 한우의 세계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라이온스클럽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우 맛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한우자조금은 중국 라이온스클럽 회원에게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소개하고, 한우 등심구이를 제공했다. 식사 후에는 한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중국인이 생각하는 한우 이미지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우를 맛본 중국인들은 “향후 한국을 방문하면 또 한우를 먹고 싶다”, “자국에서 먹던 소고기



보다 한우 맛이 더 뛰어난 것 같다”, “값어치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한우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우가 수출되어 중국에서도 한우를 맛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라이온스클럽(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은 미국에서 창설된 봉사단체이며, 현재 전 세계 207개국에서 활동 중이다. 중국 라이온스클럽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53차 인천 동양 및 동남아시아 라이온스대회를 위해 방문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탁 사무국장은 “이번 한류이벤트에 참여한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현지에도 전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우자조금은 외국인 대상 시식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로 한우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국 온라인 미디어 매체와 기자단,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한돈

한돈자조금, 서울김장문화제에서 1만인분 한돈 보쌈무료 제공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김장문화제에 참가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약 1만인분의 한돈 보쌈을 제공해 김장 축제의 열기를 북돋았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서울김장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김치로 달리자’와 ‘한돈 보쌈 DJ파티’, ‘김장문화재현’을 후원하며, 참여의 의미를 깊게 새겼다. 전래동화 ‘의 좋은 형제’를 재해석하여 서로의 팀에 더 많은 김치를 전달하는 나눔 이벤트 ‘김치로 달리다’에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돈자조금은 곧이어 진행된 ‘한돈 보쌈 파티’에서 DJ의 흥겨운 음악과 함께 6천인분의 한돈 수육을 제공하며, 김장이 끝난 후 이웃들과 함께 보쌈



을 나눠 먹었던 문화를 현대식으로 해석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이외에도 한돈자조금은 서울김장문화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한돈 레스토랑에서 한돈 보쌈과 떡국을 무료 제공하고, '한돈 소원돼지코', '한돈 꿀꿀 놀이터' 등 참석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상시로 운영했다. 한돈자조금은 상시 부스를 통

해 한돈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영양만점 한돈 보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우리의 김장문화 속에 돼지고기 보쌈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반자였다.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전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김치와 돼지고기 보쌈이 세계인의 음식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김장문화제에 이어 9개 권역의 지역에서도 김장과 연계한 한돈 나눔행사가 계속되었고, 한돈자조금은 김장 연계 나눔 행사를 11월 한 달 동안 지속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4. 11. 17]

양계

수입닭고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개시

지난 11월 7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양계관련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가 수입닭고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지금까지는 수입닭고기 저지활동이 단기적인 활동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상설기구로 조직하여 연중 수입닭고기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기로 하였다. 3개 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의 회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사무국장에는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을 선출하여 활동기로 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수입닭고기유통업체인 단체급식업체와 대형마트에 수입닭고

기 사용금지 및 불매운동을 강하게 전개기로 하였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수입닭고기
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적인 중장기적 대책도 함께 추진기로 하였다.

낙농 육우

우유자조금, 서대전공원에서 '2014 도심 속 목장나들이' 개최



가을의 끝자락 11월에 온 가족
이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
는 행사가 도심 한 가운데서
열렸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정렬)는 도심 속에서 목장 체
험을 통해 우유를 배우는 '도심
속 목장나들이'를 개최했다. 이
번 행사는 서대전공원에서 11
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진

행됐다.

'도심 속 목장나들이'는 평소 보기 드문 목장을 도심으로 옮겨와, 시민들에게 색다른 체험의 기
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행사는 <평생건강 평생우유, 평생친구가 되다!>를 주제로 평생건강
존, 평생우유존, 평생친구존 등 3가지 체험존으로 운영됐다.

평생건강존에서는 참가자들이 우유 알아보기, 송아지 우유주기, 육성우 건초주기, 젖소 손 착
유체험 등을 통해 우유가 생산되는 과정과 목장의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평생
우유존에서는 우유를 활용한 비누와 방향제, 브라우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평생
친구존에서는 국산우유의 사용률을 높이고 낙농산업을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국산
우유 사용 인증(K·MILK) 사업이 소개됐고, 게임을 통해 젖소 연필·필통·연필깎이 등을 나
눠주는 이벤트가 실시됐다.

'도심 속 목장나들이'는 국민들의 우유 섭취를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우유자조금관리

위원회의 전국적인 프로모션으로, 올해는 성남, 광주, 김제, 김해, 제주도에 이어 대전에서 6번째로 진행됐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손정렬 위원장은 “깨끗한 목장에서 365일 안전하게 생산되는 국산 흰우유의 품질과 효능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우유와 관련해 악의적인 보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유는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식품이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다 친근하게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도심 속 목장나들이를 찾아주신 대전 시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4. 11. 10]

양봉

제40차 전국양봉인의 날 & 벌꿀축제 개최

전국 양봉인들의 축제 ‘제40회 전국 양봉인의 날 & 벌꿀축제’가 지난 11월 3일과 4일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에서 열렸다.

(사)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균환)가 주관하고,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양봉농가의 사기진작과 농가 간 화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한국양봉협회 회원과 가족, 전국 양봉농가와 양봉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등 약 3,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날인 11월 3일에는 저녁 전야제로 야외공연이, 11월 4일에는 전국 양봉인의 날 기념식, 양봉 노래자랑 등의 행사가 열렸다.

양봉산업 육성지원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도 양봉농가 현장간담회, 양봉산업발전 심포지엄도 열렸다. 국내 양봉 연구현황과 전망, 꿀벌 병해충 관리, 양봉산물 다양화, 꿀벌 기생성 응애의 연구현황과 전망 등 다양한 업계 현황을 논하는 자리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지역 벌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제주 양봉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 [2014. 11. 03]

사슴

2014 우수사슴선발대회 성료 진용삼사슴목장 '진용삼1호' 대상 수상



2014 우수사슴선발대회 영예의 대상은 진용삼사슴목장(대표 진용삼)의 진용삼1호가 차지했다.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서초동 소재 웨딩홀 아베뉴에서 제22회 우수사슴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발대회에는 전국의 이름 있는 목장 30여 곳에서 출품한 우수녹용들이 국내 최고 녹용의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영예의 대상은 진용삼사슴목장의 진용삼1호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대상을 받은 진용삼사슴목장의 녹용 무게가 21.7kg으로, 상대의 상태가 매우 좋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유환 회장은 “우수사슴선발대회는 우리 사슴산업의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됨은 물론이고 전국 4천여 양록인의 잔치”라며 “오늘 상을 받은 모든 농가에게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국내산 우수녹용이 더욱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양록산업이 이로 인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4. 10. 27]

